

다산포럼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소득 주도 성장은 혁신 경제의 발판

소득 주도 성장은 케인스주의 주요 확대 정책이어서 단기 경제 활성화 효과는 있지만,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OECD 최악의 저임금과 저생산에서 비롯된 저성장이다. 저임금, 저생산, 저성장, 저혁신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 한국 경제 침체 원인 중 하나가 총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 총수요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전부는 아니다.

차별·저임금·장시간 노동

소득 주도 성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켜 온 기존의 성장론으로는 더 이상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성장 자체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학에서 성장은 자본, 노동, 기술 혁신 3가지 요소가 결정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낙수효과'를 강조한 기존 성장 정책은 주로 자본과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축 규모가 투자를 크게 앞서고 대기업의 유보이익이 남아돌아 자사주 전치

로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현실이기에 법인세 인하 같은 자본 인센티브 정책은 이제 별 효과가 없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OECD 최악의 저임금과 저생산에서 비롯된 저성장이다. 저임금, 저생산, 저성장, 저혁신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 한국 경제 침체 원인 중 하나가 총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 총수요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전부는 아니다.

공공부문이나 재벌 대기업 같이 노조의 보호를 받는 10%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자식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대학 입시 통과 경쟁에 도움을 줄 뿐 학생의 진정한 학습 역량 향상과 무관한, 아니 오히려 저해하는 사교육 경쟁에 우리는 매년 수십조 원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 오래되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만 해도 법대, 경영대, 의대에는 여학생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남녀 반반이다. 이처럼 남녀 간 인적 자본 격차가 없기에 27~29세 연령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거의 없다. 그런데 30세 이후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면서 여성 취업률이 푹 떨어지고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해 전체 남녀 간 임금격차는 OECD 1위다. OECD 경쟁국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복지 확충으로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엄청난 교육 투자를 해놓고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회 낭비를 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연령별 인구 감소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3~5년이 되면 한국도 일 본처럼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한다. 그 전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 복지 선진국처럼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잠재성장률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

사회복지는 가족 분업으로 해결하던 육아, 노인 부양, 간병, 실업 등의 문제를 현대적 복지 제도의 분업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내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내 환자 1

명만 돌보지만, 건강보험 재정으로 10명의 간병인을 고용하면 분업의 효율로 20~5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볼 수 있다. 선진국이 복지를 강화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혁신에서 작업현장의 불평등을 낮추는 일상적 향상과 혁신 경제로 나가려면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90% 노동자의 고용불안, 임금 차별, 장시간·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이 존중받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 청년이 공무원·공기업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을 때 노동자의 창의성도 가능하고 혁신 경제의 문도 열린다.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는 복지 분업으로 사회 위험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이 삶의 여유를 갖고 모험적 혁신 과정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이 소득 주도 성장도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헬조선'에 도전하지 않고는 성장도 혁신 경제도 없기 때문이다.

청춘 특·특



박정서 광주문화재단 대학생 기자단·조선대 4

청년이 가진 문화적 힘

고 있는지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시각문화큐레이터학을 전공하면서 순수미술과 큐레이팅 쪽에만 관심이 쏠려 있던 필자의 시선이 광주 문화 전체로 넓어지면서 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중이다.

몇 달 전 청년기획사 '데블스'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곳은 대표를 포함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6세인 청년기업이다. 한 기업의 대표가 나와 비슷한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놀랐다. 그들은 2015년부터 광주발산마을활성화 사업인 '청춘발산'에 참여해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발산마을의 소소한 일상을 재미있게 담아낸 영상으로 SNS와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중 가장 주목받은 '발산 뉴스'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마을 풍경을 찍어 전시도 열었다. 이들의 행보는 전국 누리꾼들에게 알려져 '데블스의 아이디어'는 너무 참신하고 재미있다. 광주에 가면 발산마을에 꼭 가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의 문화 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하

는 데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송정역시장, 양림동, 발산마을 등도 젊은 층의 방문 빈도가 늘면서 그들의 취향이나 관심사가 스며들어 활기를 더하게 됐다. 각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살리면서 유행에 맞도록 분위기와 트렌드 모두를 잡았다. 이른바 '빈티지 감성'이 느껴지는 낡고 오래된 주택들의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 두고, 내부만 약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많은 이들의 취향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재탄생된 공간은 예술가의 작업실, 카페, 식당, 미술관 등이 되었다.

이처럼 광주의 프로젝트들이 연이여 모범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시민과 기관, 기업의 지속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지금 광주는 문화적으로 도약의 시기에 있다. 예전에 비해 '광주의 색깔'도 매우 뚜렷해졌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날로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게다가 청년 기획사, 예술가,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또한 진행 중에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도 꿈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필자도 올해 12월 광주문화재단이 개최하는 광주미디어아프스티벌의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양성교육에 참여했는데, 큐레이팅에 대한 기본 이론뿐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큐레이터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꿈에 한 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지난 1년간 대학생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광주에 이렇게도 다채로운 청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놀라기도 하고 희망도 커졌다. 이 글에 모두 소개하기에도 힘들 만큼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활약하고 노력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조금만 찾아보면 더 많은 청년들의 행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어쩌면 이제는 청년이 광주 문화를 이끄는 주체로 서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청년들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해졌고, 힘과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기회는 주어졌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낼지 그들의 손에 달린 만큼 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문화는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국면을 신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머지않아 청년들의 꿈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기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과 미래의 문제



김하연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즉, 중국은 여전히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고 더불어 미국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 해결구도에 대해의 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한·미·일'의 군사협력 및 동맹 구도가 구축되어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하고 있음이 발표문에는 나타나 있다.

군사·안보 측면의 문제는 '북핵'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북핵'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으며, 그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핵'을 도의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체제의 구축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크게 보면 대치-긴장구도가 양국의 공동 이익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해왔듯이 시진핑 주석이 271 집권을 확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전향하여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 동안 이러한 냉각기는 처음이었던 것 만큼, 이를 통해 향후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드로 인한 냉각기에 양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며, 한국의 피해는 더 크다. 또 이 기간에 다른 국가가 얻은 이익도 막대하다. 한·중의 경제적 교류는 이미 너무 깊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며, 한편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추격해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는 경제 규모나 구매력, 향후 미래를 고려할 때 결코 중국을 도의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점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번 냉각기에 중국의 일반 대중,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한 정서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일정 부분 형성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바로 일반 대중이고, 그 사회의 여론과 방향을 형성하는 층이 지식인을 위시한 민간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느끼는 반한 정서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며, 한국의 반중 정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민간 차원의 지속적 호혜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좀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여겨진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나, 땅은 저절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방안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더 굳어지는 것이다.

社說

‘직접 사살·암매장’ 지휘관의 첫 고백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그토록 기다리던 양심선언. 5·18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부대원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에서 민간인 세 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옛 전남 도청 진압 작전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포함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본보 기자가 최근 단독으로 만난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지역대장 신 모(69) 소령은 "부대원들과 교도소 정문으로 접근하는 시위대 차량에 열제 사격해 3명을 사살, 교도소 앞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15대대 부대원들이 교도소 담 인근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 2~3구씩 15구를 묻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이와 관련해 "15대대원들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 2~3구씩을 던져 넣은 후 흙을 덮었다. 매장 장소를 알 수 있는 표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시위대 차량이 접근하면 무조건 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는 "옛 광주 교도소에서 현재 발굴 중인 곳에 12명이 묻혀 있었다고 들었는데, 15대대 구역에 더 많은 시신이 매장돼 있다"며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암매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5·18 당시 32세였던 신 소령은 11대대 소속 지역대장 4명 중 1명으로 광주에 파견된 영관급 지휘관이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기분"이라는 그는 "군인이라는 직업의식에 사로잡혀 좀 더 일찍 진실을 말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신 소령이 늦었지만 용기 있는 고백을 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얼마 전 5월 단체들은 5·18 가해자라도 참회와 고백을 할 경우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소령의 증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시장이 기업체 회장에게 큰절 올린 까닭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무릎 꿇고 절하는 사진<광주일보 13일자 1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장이 큰절을 한다는 자체가 흔치 않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절을 받은 이는 광주시를 방문한 엠코테크놀로지(주) 김주진(80)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광주에 많은 일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이에 윤 시장이 감사의 큰절을 올린 것이다.

언뜻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윤 시장이 한국법인인 엠코코리아의 고용 확대를 이끌어 낸 사연을 알고 나면 진정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절이라는 점에 공감하게 된다. 엠코테크놀로지는 나스닥 상장사이자 50년 전통의 세계적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다.

지난해 말 윤 시장은 엠코코리아가 서울사업장을 인천 송도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때부터 윤 시장은 엠코코리아 광주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김주진 회장에게 타 차례

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울사업장의 인력·설비를 광주에 나눠주도록 요청했다.

윤 시장의 요청에 김 회장은 얼마 되지 않아 긍정적인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윤 시장은 곧바로 종가집 고추장과 된장을 한 단지씩 구해 직접 서울 본사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엠코코리아 광주사업장은 설비 추가와 함께 500명의 근로자를 증원해 총 근로자가 4000명으로 늘었다. 윤 시장은 특유의 친근감을 발휘해 사석에서는 김 회장을 형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윤 시장의 끈질긴 구애에 김 회장은 송도와 광주를 쌍두마차로 한 '백년 기업 엠코'를 이끌겠다고 답했다. 기업의 투자(고용) 유치를 위해 손수 편지를 쓰고, 정성어린 선물 꾸러미를 직접 들고 기업 총수를 방문한 윤 시장의 아닐 엠코코리아 광주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김주진 회장에게 타 차례

<b>無 等 鼓</b>	
<p>조선 건국 최대 공신인 정도전은 중앙 권력 강화와 왕실의 힘 약화를 위해 사병 혁파를 시도했다. 이에 수세에 몰린 이방원 등 신의왕후 한씨 소생 왕자들은 1398년 8월25일 사병을 동원, 정도전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을 살해했다.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이다.</p> <p>이후 둘째인 방과가 세자가 되고 곧바로 정종으로 즉위했다. 그런데 정종과 정비 정안왕후 사이에 자식이 없자 세자 자리를 놓고 방원과 방간 간에 갈등이 벌어졌고 1400년 1월 무력 충돌이 일어</p>	<p>두르고 있다. 평소 험기를 잘 안 타던 왕자가 의문의 헬기 추락사를 당하고 왕자 일가족이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했다.</p> <p>7대인 현 국왕인 살만은 2015년 1월 80세에 즉위하면서 자신을 마지막으로 형제 승계의 전통을 끊었다. 취임 직후에는 왕세제로 이복동생 무르신을 책봉했지만, 석 달 뒤 그를 실각시키고 대신 큰조카 무함마드 빈나예프를 제1왕세자, 천아를 빈살만을 제2왕세자로 지명했다.</p> <p>하지만 이 구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빈 살만이 지난 6월 친위</p> <p>부대를 동원해 사촌형 빈나예프를 겁탈하고 '왕세자' 자리를 강탈했다. '제1차 왕자의 난'이다. 이후 빈살만은 권력 강화에 집중해 군·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이달 들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p> <p>지난 4월 정예군을 동원해 잠재적 정적(政敵)인 사촌형 왕자들과 그의 측근들을 부패 혐의로 대거 체포하는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에 이 무슨 일인가 싶다. 권력의 무서움을 또다시 느끼게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박지경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p>
<b>왕자의 난</b>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